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팹 부지 ‘선착공’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지 전체를 완성한 뒤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팹(Fab) 부지부터 먼저 공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마련한다.

25일 LH에 따르면 이날 들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비롯해 재해영향평가,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토질조사, 드론을 활용한 지형측량 등 모두 5건의 용역을 잇따라 발주했다.

산단 개발의 기본 밑그림을 마련하는 조사·설계용역은 다음달 입찰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해영향평가

와 환경영향평가, 토질조사 등 관련 용역도 9월 중 대부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발주가 잇따르는 것은 산단 조성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LH가 제시한 산단 조성공사 규모는 약 820만㎡로, 공사기간은 46개월이다. 추정 공사비는 4455억원이다. 이는 반도체 팹 건설비와 외부 전력·용수시설 등을 제외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기준이다.

산단 전체가 완성되기를 기다렸다가 팹 공사에 들어갈 경우 2030년 양산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LH는 ‘선착

LH, 9월까지 측량·토질·환경·재해평가 등 5개 용역 발주 전체 산단 46개월 공사…전력·용수 확보 구역부터 개발

공’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조사·설계용역에는 반도체 팹 조 기작공을 위한 별도 검토사항이 담겼다. 송전선로와 광역상수도 확보 여부를 비롯해 연약지반, 토양오염, 문화재, 기존 도로와 지장물 등이 팹 착공을 늦출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가운데 전력과 용수 공급 여건은 팹 부지 선정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LH는 기반

시설 공급 가능성과 현장 조건을 종합해 산단을 여러 구역으로 나눈 뒤 산업용지를 먼저 착공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도록 했다.

기존에 거론됐던 약 208만㎡ 규모의 우선 공급 구상 역시 이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어느 구역을 먼저 공사할지는 전력·용수 공급 시기와 지반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속 사정도 변수다.

LH는 토질조사를 통해 산단 예정지에 평균 2m 안팎, 최대 6.5m 정도의 연약층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분포와 처리 방안을 조사한다. 전체 토질조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팹 선착공이 가능한 구역은 우선 조사해 시험 결과 등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각종 영향평기도 착공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와 맞물려 진행한다.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토질조사와 기본 계획 등의 결과를 공유해 저류지와 배수시설 같은 재해 예방시설을 설계에 바로 반영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함께 추진한다.

군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토양오염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지형측량에는 드론을 활용해 수치지형도와 3차원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산단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국가산단 후보지를 공식 사업부지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배치와 별개로 개발이 가능한 구역부터 용도와 형질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은 25일 월출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남생이의 개체군 복원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 월출산서 멸종위기종 남생이 보전 활동

1000만원 후원…임직원·대학생 홍보대사 봉사 참여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25일 월출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남생이의 개체군 복원과 서식지 보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이어 광주은행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30여명은 남생이 서식지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월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붉은귀거북 포획·제거 활동을 비롯해 증식장 내 남생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 서식 환경을 정화하는 등 생태보호 활동을 펼쳤다.

남생이는 하천과 저수지 등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거북으로, 서식지 훼손과 외래종 유입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 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총식 광주은행 브랜드전략부장은 “지역의 소중한 생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사회와 함께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ESG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정보보호지원센터

사이버 범죄 대응교육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전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25일 장성군노인복지관과 함평군노인복지관에서 ‘고령층 대상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전남노인종합복지관 협의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 순회형 정보보호교육의 일환이다. 나주·보성·진도에 이어 장성과 함평으로 교육 지역을 확대해 고령층의 사이버 위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는 장성군노인복지관 60여명, 함평군노인복지관 40여명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전남센터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와 사회·경제적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보안수칙과 개인정보 등 중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카카오톡 ‘보호나라’ 서비스를 활용해 스팸·피싱 의심 문자를 직접 진단해보는 실습도 진행했다.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초동 조치와 신고 기관 등 대응 절차도 함께 교육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홍 기자

광주관광공사, 뷰티산업전 전문성 강화

뷰티 마케팅 전문기업 ‘슬룩’과 협약…10월 2~4일 DJ센터

광주관광공사가 오는 10월 열리는 전남광주뷰티산업전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25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2026 전남광주뷰티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남광주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뷰티 마케팅 전문기업 슬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6 전남광주뷰티산업전’ 기간 동안 뷰티산업 종사자와 관련 전공 학생, 일반 참가객 등을 대상으로 최신 산업 동향과 실무 정보를 공유하는 전문 세미나를 공동 기획·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뷰티 전문 세미나 기획 및 운영, 최신 산업 트렌드 및 기술 정보 공유, 전시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협력, 뷰티산업 관련 네트워크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한다.

슬룩은 뷰티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산업 동향과 실무 중심의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주관광공사는 이를 전시회와 연계해 산업 관계자와

참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제품 전시를 넘어 산업 정보와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산업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참가기업과 바

이여, 참관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시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문 세미나 프로그램까지 강화해 산업 관계자와 참관객 모두가 최신 뷰티 트렌드와 실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전남광주뷰티산업의 판로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전남광주뷰티산업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전남광주뷰티산업전’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외국인환자 유치 본격화…의료·관광 연계

광주특별시, 의료기관-관광지 연계 ‘의료관광’ 투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4~25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지역 주요 의료기관·관광지 일원에서 ‘2026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페어’를 열고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과 의료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주요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19곳이 참여했다.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의료기관과 중국·몽골·

베트남·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태국·러시아·말레이시아 등 8개국 해외 바이어가 만나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모두 96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8건은 업무협약(MOU) 체결로 이어졌다.

25일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지역 의료기관과 관광·문화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팸투어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지역 의료진과 의료서비스를 살펴보

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 주요 관광·문화시설을 체험했다.

이번 팸투어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지역의 관광·문화 콘텐츠를 함께 소개해 외국인환자가 치료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의료관광 상품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과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주요 해외시장에 지역의 의료 역량과 의료관광 상품을 알리고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전우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봇가전 의료산업과장은 “이번 행사가 전남광주의 우수한 의료 역량을 해외에 알리고 지역 의료기관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